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82-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9회 지선 특집: 사전투표율 분석

2026. 6. 1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9회 지선 사전투표율

9회 지선 사전투표율 23.51%, 8회 지선 대비 2.89%포인트 상승 지방선거 기준,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5월 29일(금)과 30일(토) 이틀에 걸쳐 진행된 9회 지선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5만여명 중 1050만여명이 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지난 8회 지선(20.62%) 대비 2.89%포인트 상승해 지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11.60%로 8회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10.18%)을 뛰어넘었고, 둘째 날 사전투표율 역시 11.91%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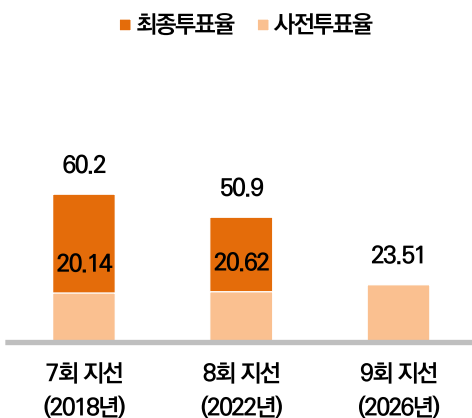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38.95%)와 전북특별자치도(35.05%)로, 모두 30%를 넘었다. 광주광역시(27.83%)가 그 뒤를 이어서,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율이 18.65%로 최저를 기록했고, 경기도(20.96%)와 부산광역시(21.29%)의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8회 지선과 비교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사전투표율은 10.64%포인트, 광주광역시 사전투표율은 10.55%포인트 상승해 두 자리수 상승을 보였다. 전라남도의 사전투표율도 7.91%포인트 상승하는 등,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승폭이 뚜렷하게 컸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8회 지선 대비 상승한 가운데, 유일하게 경상북도의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선 대비 소폭(0.77%포인트) 하락했다.

지선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최종투표율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직전 8회 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당일투표율이 크게 감소해 최종투표율은 7회 지선 대비 9.3%포인트 줄어든 바 있다. ‘어차피 투표를 할 사람’이 사전투표일에 대거 투표한 것인지, 혹은 전반적인 투표 열기가 상승해 당일투표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는 6월 3일이 되어봐야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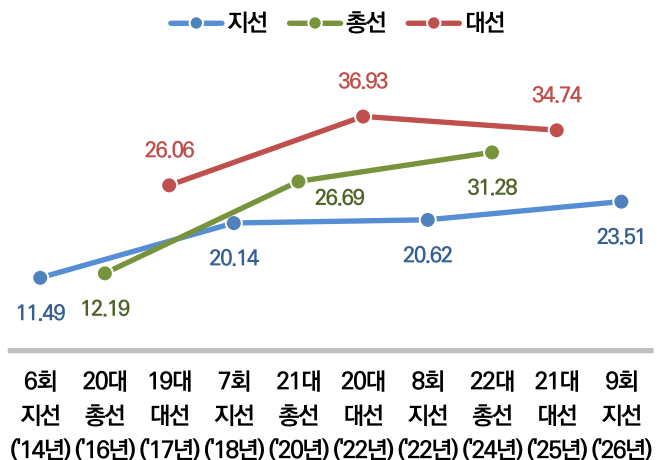
9회 지선 사전투표율 23.51%, 8회 지선 대비 2.89%포인트 상승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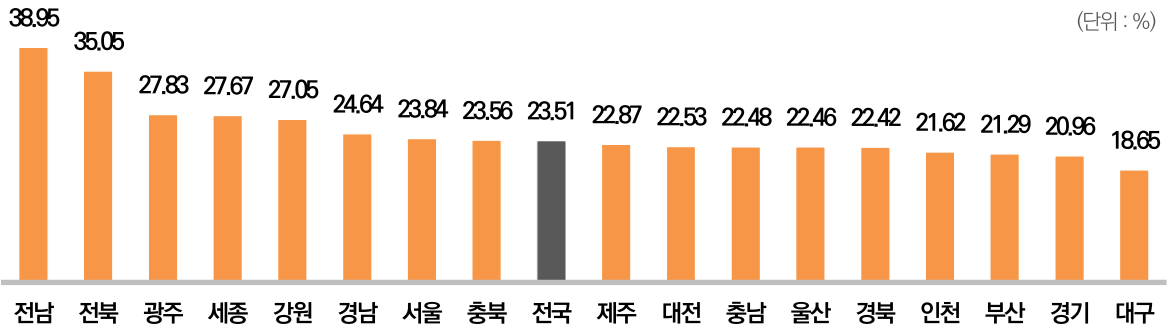
지방선거 기준,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기록
2014년 6회 지선 이후 사전투표율 꾸준히 상승 추세

(단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사전투표율 30% 돌파,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사전투표율은 8회 지선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
 경상북도 사전투표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8회 지선 대비 감소

	8회 지선	9회 지선	차이 (9회-8회, %p)
전체	20.62	23.51	+2.89
전라남도	31.04	38.95	+7.91
전북특별자치도	24.41	35.05	+10.64
광주광역시	17.28	27.83	+10.55
세종특별자치시	22.39	27.67	+5.28
강원특별자치도	25.20	27.05	+1.85
경상남도	21.59	24.64	+3.05
서울특별시	21.20	23.84	+2.64
충청북도	21.29	23.56	+2.27
제주특별자치도	21.38	22.87	+1.49
대전광역시	19.74	22.53	+2.79
충청남도	20.25	22.48	+2.23
울산광역시	19.65	22.46	+2.81
경상북도	23.19	22.42	-0.77
인천광역시	20.08	21.62	+1.54
부산광역시	18.59	21.29	+2.70
경기도	19.06	20.96	+1.90
대구광역시	14.80	18.65	+3.8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

기초자치단체별 사전투표율 변화

기초자치단체 255곳과 세종시 중 지난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이 상승한 곳은 226개(88%)
경북에서는 사전투표율이 하락한 기초자치단체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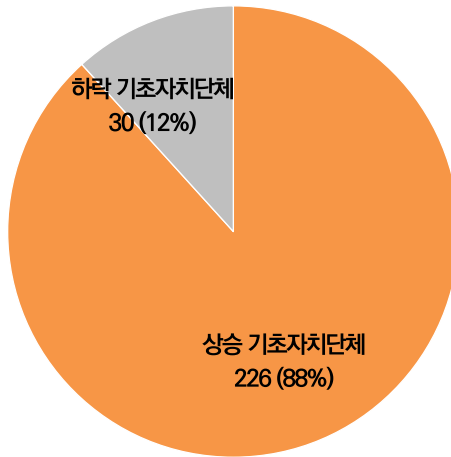
자치구와 행정구를 포함한 255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전투표율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8회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이 상승한 곳은 모두 226곳(88%)이다. 30곳(12%)은 사전투표율이 하락했다.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 대전·세종, 광주, 전북, 부산, 울산,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지난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이 상승했다. 경기(96%), 전남(95%), 충북(93%), 강원(89%), 대구(89%), 충남(88%), 인천(82%), 경남(77%)의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도 사전투표율이 상승했다. 반면 경북의 2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4개(61%)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하락해, 다른 광역시도와 차이를 보인다.

기초자치단체 255곳과 세종특별자치시 중 지난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이 상승한 곳은 226개(88%)

(단위: 개)

지난 8회 지선 사전투표율 대비,
이번 9회 지선 사전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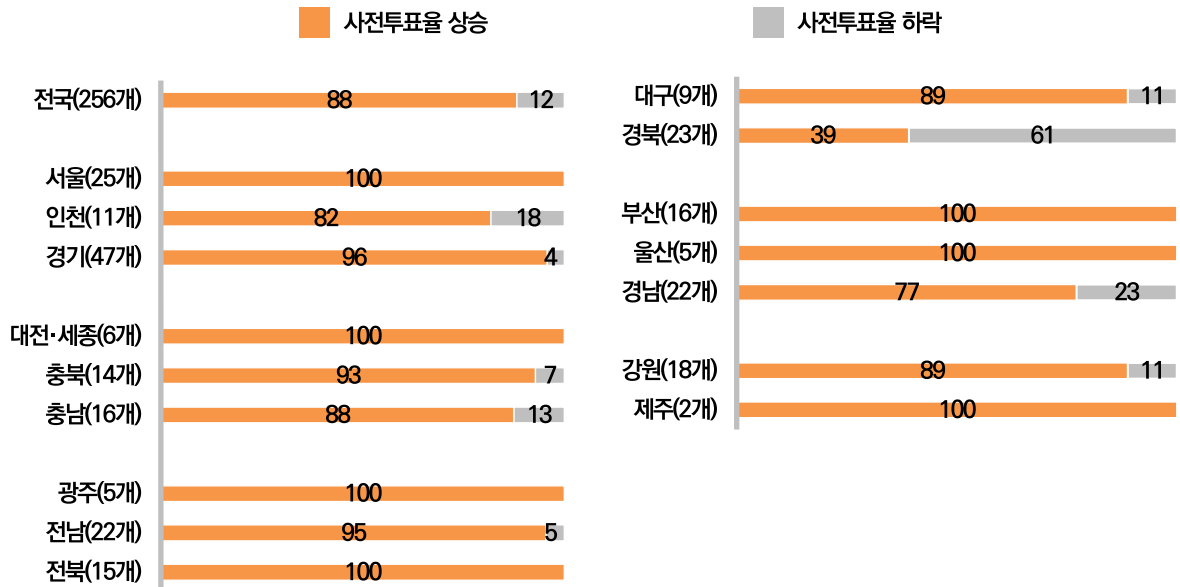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를 활용해 계산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서울, 대전·세종, 광주, 전북, 부산, 울산, 제주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8회 지선 대비 상승
경북에서는 사전투표율이 하락한 기초자치단체가 61%로 더 많아

(단위: %)

지난 8회 지선 대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를 활용해 계산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사전투표율 상승폭 큰 20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호남... 합평균은 18.21%포인트 상승
반면 하락폭 큰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곳이 대구·경북... 군위군은 12.26%포인트 하락

전북 순창군의 사전투표율은 62.31%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순창군은 지난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69.35%)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던 곳이다. 전남 신안군의 사전투표율도 60%를 넘는 등(61.31%), 사전투표율이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전북과 전남에서 나왔다. 반면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은 경북 포항 북구(16.30%), 경북 경산(16.37%), 경북 포항 남구(16.83%) 등으로, 하위 20곳 중 10곳이 대구·경북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사전투표율은 17.33%로, 지난 지선 대비 1.45%포인트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낮다.

8회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 상승폭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합평군(+18.21%포인트)이며, 전남 담양군(+13.82%포인트), 전남 보성군(+12.93%포인트), 전북 순창군(+12.56%포인트), 전남 신안군(+12.55%포인트) 등의 순이다. 사전투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호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호남 지역이었다.

사전투표율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 군위군으로, 지난 지선 대비 12.26%포인트가 하락해 유일하게 두 자리 수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어서 경북 의성군(-7.52%포인트), 경북 영양군(-6.68%포인트), 경북 울릉군(-6.28%포인트) 등 경북의 군 지역들이 뒤를 잇는다. 사전투표율 하락폭이 큰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곳이 대구·경북 지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하락폭이 가장 큰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19개가 대구·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였다.

**사전투표율 상승폭 가장 큰 20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호남... 함평군은 18.21%포인트 상승
반면 하락폭 가장 큰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곳이 대구·경북... 군위군은 12.26%포인트 하락**

(단위 : %, %p)

사전투표율 상승폭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20곳				사전투표율 하락폭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20곳			
지역	8회 지선 사전투표율	9회 지선 사전투표율	변동폭 (9회-8회)	지역	8회 지선 사전투표율	9회 지선 사전투표율	변동폭 (9회-8회)
전라남도 함평군	36.00	54.21	+18.21	대구광역시 군위군	52.08	39.82	-12.26
전라남도 담양군	38.07	51.89	+13.82	경상북도 의성군	44.14	36.62	-7.52
전라남도 보성군	36.16	49.09	+12.93	경상북도 영양군	47.08	40.40	-6.68
전북자치도 순창군	49.75	62.31	+12.56	경상북도 울릉군	47.09	40.81	-6.28
전라남도 신안군	48.76	61.31	+12.55	경상북도 청도군	33.51	29.75	-3.76
전북자치도 군산시	17.58	30.11	+12.53	경상남도 합양군	42.34	38.86	-3.48
전북자치도 전주 완산구	17.17	29.45	+12.28	경상북도 경주시	22.41	19.10	-3.31
전북자치도 전주 덕진구	16.78	28.49	+11.71	경상북도 상주시	31.61	28.87	-2.74
전라남도 완도군	38.05	49.57	+11.52	경상남도 하동군	43.52	40.88	-2.64
광주광역시 동구	20.70	32.19	+11.49	경상북도 성주군	37.37	34.81	-2.5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31.62	42.95	+11.33	경상북도 청송군	37.35	34.88	-2.47
전라남도 진도군	43.94	55.03	+11.09	경상남도 의령군	37.80	35.43	-2.37
광주광역시 광산구	13.58	24.64	+11.06	인천광역시 옹진군	36.94	34.60	-2.34
광주광역시 남구	18.78	29.70	+10.92	충청북도 단양군	33.29	31.36	-1.9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4.26	45.08	+10.82	경상북도 영주시	27.91	26.10	-1.81
광주광역시 북구	18.25	28.68	+10.43	경상북도 영천시	25.01	23.25	-1.76
전라남도 여수시	19.31	29.65	+10.34	인천광역시 계양구	22.66	21.33	-1.33
전라남도 해남군	30.68	40.62	+9.94	경상북도 고령군	27.67	26.49	-1.18
전라남도 구례군	40.75	50.44	+9.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7.88	16.83	-1.0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43.53	53.16	+9.63	경상북도 김천시	28.40	27.47	-0.9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서울·인천 36개 기초자치단체의 8회·9회 지선 사전투표율

(단위 : %, %p)

	8회 지선	9회 지선	변동폭 (9회-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23.90	26.61	+2.71
서울특별시 은평구	22.30	25.92	+3.62
서울특별시 동작구	23.18	25.79	+2.61
서울특별시 도봉구	21.37	25.53	+4.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1.75	25.14	+3.39
서울특별시 성북구	22.02	24.95	+2.93
서울특별시 중구	22.45	24.85	+2.40
서울특별시 중랑구	21.55	24.84	+3.29
서울특별시 마포구	21.22	24.66	+3.44
서울특별시 성동구	22.20	24.33	+2.13
서울특별시 광진구	20.74	24.31	+3.57
서울특별시 양천구	21.65	24.31	+2.66
서울특별시 강동구	21.57	24.27	+2.70
서울특별시 용산구	21.69	24.25	+2.56
서울특별시 강북구	21.10	24.12	+3.02
서울특별시 노원구	21.23	24.11	+2.8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43	23.84	+3.4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59	23.45	+2.86
서울특별시 관악구	21.34	23.34	+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21.41	23.30	+1.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67	23.26	+2.5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42	22.99	+2.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73	22.79	+3.0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	20.88	+0.79
서울특별시 강남구	18.60	19.09	+0.49
인천광역시 옹진군		34.60	-2.34
인천광역시 강화군	30.66	33.05	+2.3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22.39	23.57	+1.19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	21.92	+1.66
인천광역시 검단구	18.73	21.70	+2.97
인천광역시 부평구	19.19	21.54	+2.35
인천광역시 계양구	21.33	22.66	-1.33
인천광역시 영종구	19.16	21.00	+1.84
인천광역시 남동구	19.01	20.94	+1.93
인천광역시 서구	18.73	20.71	+1.9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98	20.26	+1.28

비고: 행정구역 개편 예정인 인천광역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은 아래 기준을 적용

- 인천 제물포구: 인천 중구와 인천 동구 사전투표율의 평균
- 인천 영종구: 인천 중구의 사전투표율
- 인천 서구, 인천 검단구: 인천 서구의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경기 47개 기초자치단체의 8회·9회 지선 사전투표율

(단위 : %, %p)

	● 8회 지선	● 9회 지선	변동폭 (9회-8회)
경기도 연천군	24.17	27.38	+3.21
경기도 양평군	26.84	27.11	-0.27
경기도 과천시	25.97	25.99	+0.02
경기도 가평군	25.28	25.75	+0.47
경기도 하남시	21.47	24.54	+3.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1.81	24.51	+2.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3.03	24.47	+1.4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2.49	24.30	+1.81
경기도 광명시	22.59	24.12	+1.53
경기도 포천시	21.97	23.79	+1.82
경기도 여주시	22.64	23.56	+0.92
경기도 동두천시	22.48	23.26	+0.78
경기도 의왕시	21.74	23.18	+1.4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66	23.11	+2.4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1.89	22.70	+0.8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9.24	22.65	+3.41
경기도 군포시	20.20	22.44	+2.24
경기도 안성시	21.99	22.32	+0.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1.16	22.20	+1.04
경기도 이천시	19.94	22.10	+2.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9.24	21.94	+2.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1.68	21.99	-0.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9.62	21.59	+1.97
경기도 광주시	17.23	21.49	+4.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8.06	21.34	+3.28
경기도 구리시	19.09	21.28	+2.1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9.55	21.15	+1.6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9.00	21.05	+2.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9.94	20.82	+0.8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17.85	20.71	+2.86
경기도 의정부시	17.93	20.49	+2.56
경기도 양주시	18.65	20.42	+1.7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8.66	20.35	+1.69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17.85	20.00	+2.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8.80	19.92	+1.1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17.85	19.82	+1.97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19.24	19.71	+0.4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6.26	18.93	+2.67
경기도 오산시	14.98	18.89	+3.91
경기도 남양주시	16.61	18.86	+2.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7.65	18.80	+1.15
경기도 김포시	16.93	18.63	+1.70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17.85	18.52	+0.6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6.35	18.27	+1.92
경기도 시흥시	16.45	18.26	+1.81
경기도 파주시	15.47	17.95	+2.48
경기도 평택시	15.88	17.33	+1.45

비고: 8회 지선 당시 행정구 분구 전이었던 부천시의 3구, 화성시의 4구는 각각 부천시, 화성시 전체 사전투표율을 적용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대전·세종·충청 36개 기초자치단체의 8회·9회 지선 사전투표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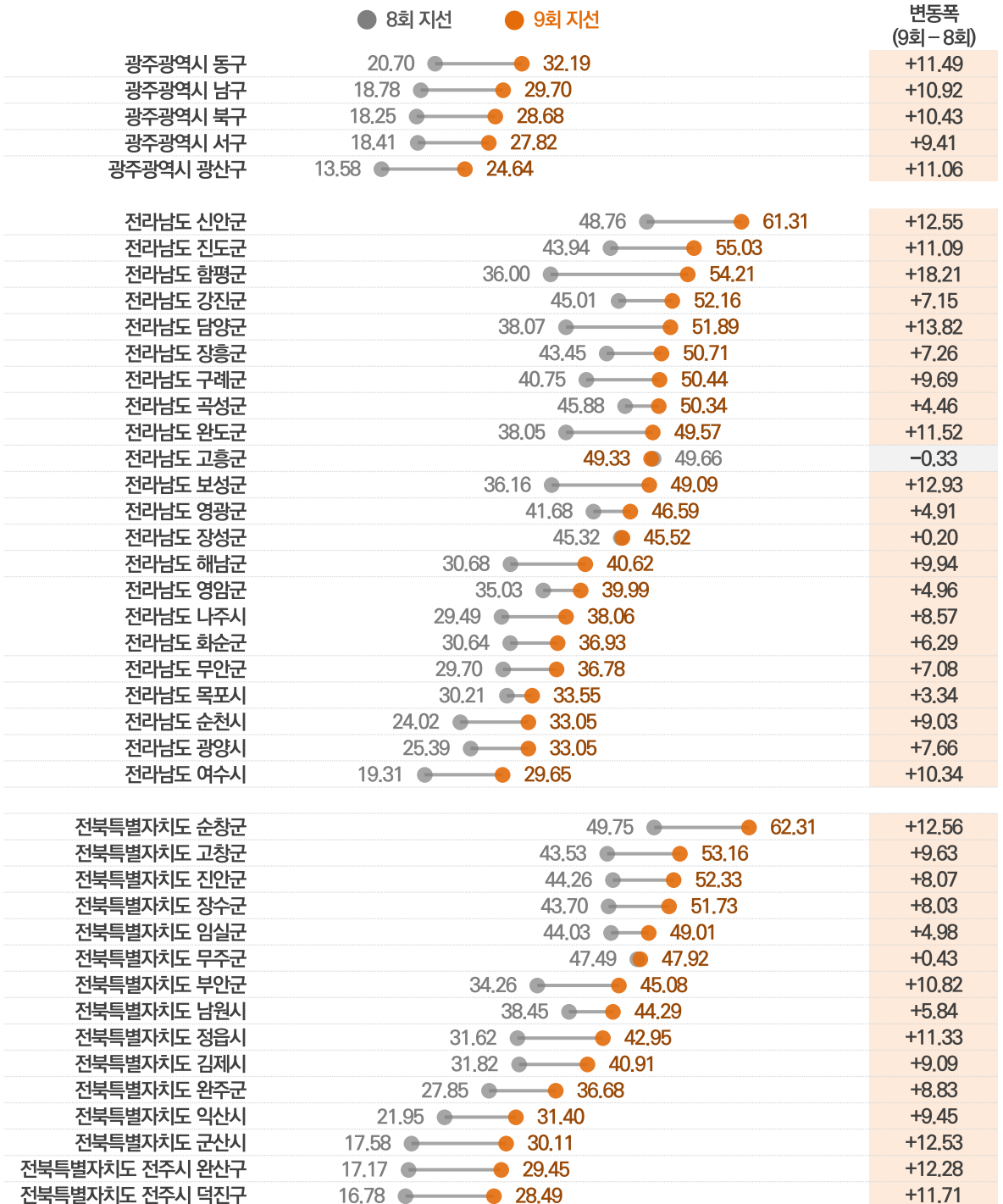
	8회 지선	9회 지선	변동폭 (9회-8회)
세종특별자치시	22.39	27.67	+5.28
대전광역시 유성구	19.98	23.94	+3.96
대전광역시 대덕구	19.19	22.15	+2.96
대전광역시 서구	19.16	21.82	+2.66
대전광역시 동구	20.84	22.76	+1.92
대전광역시 중구	19.93	21.77	+1.84
충청북도 보은군	36.69	40.12	+3.43
충청북도 괴산군	37.11	39.03	+1.92
충청북도 영동군	34.21	35.47	+1.26
충청북도 옥천군	32.17	33.57	+1.40
충청북도 단양군	31.36	33.29	-1.93
충청북도 제천시	24.37	26.93	+2.56
충청북도 증평군	24.81	26.11	+1.30
충청북도 음성군	23.72	25.60	+1.88
충청북도 진천군	21.20	24.07	+2.87
충청북도 충주시	21.21	23.38	+2.1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9.10	21.43	+2.3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9.12	21.17	+2.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5.54	19.07	+3.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5.32	17.70	+2.38
충청남도 청양군	34.85	35.52	+0.67
충청남도 서천군	31.10	31.22	+0.12
충청남도 태안군	29.37	30.23	+0.86
충청남도 부여군	29.50	29.59	-0.09
충청남도 공주시	26.00	28.86	+2.86
충청남도 보령시	28.39	28.89	-0.50
충청남도 계룡시	25.86	27.82	+1.96
충청남도 금산군	26.28	27.46	+1.18
충청남도 홍성군	23.42	26.06	+2.64
충청남도 논산시	22.42	24.82	+2.40
충청남도 예산군	24.35	24.44	+0.09
충청남도 서산시	20.29	24.10	+3.81
충청남도 당진시	19.48	23.24	+3.76
충청남도 아산시	15.73	18.46	+2.7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3.99	17.59	+3.6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5.17	17.38	+2.2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광주·전남·전북 42개 기초자치단체의 8회·9회 지선 사전투표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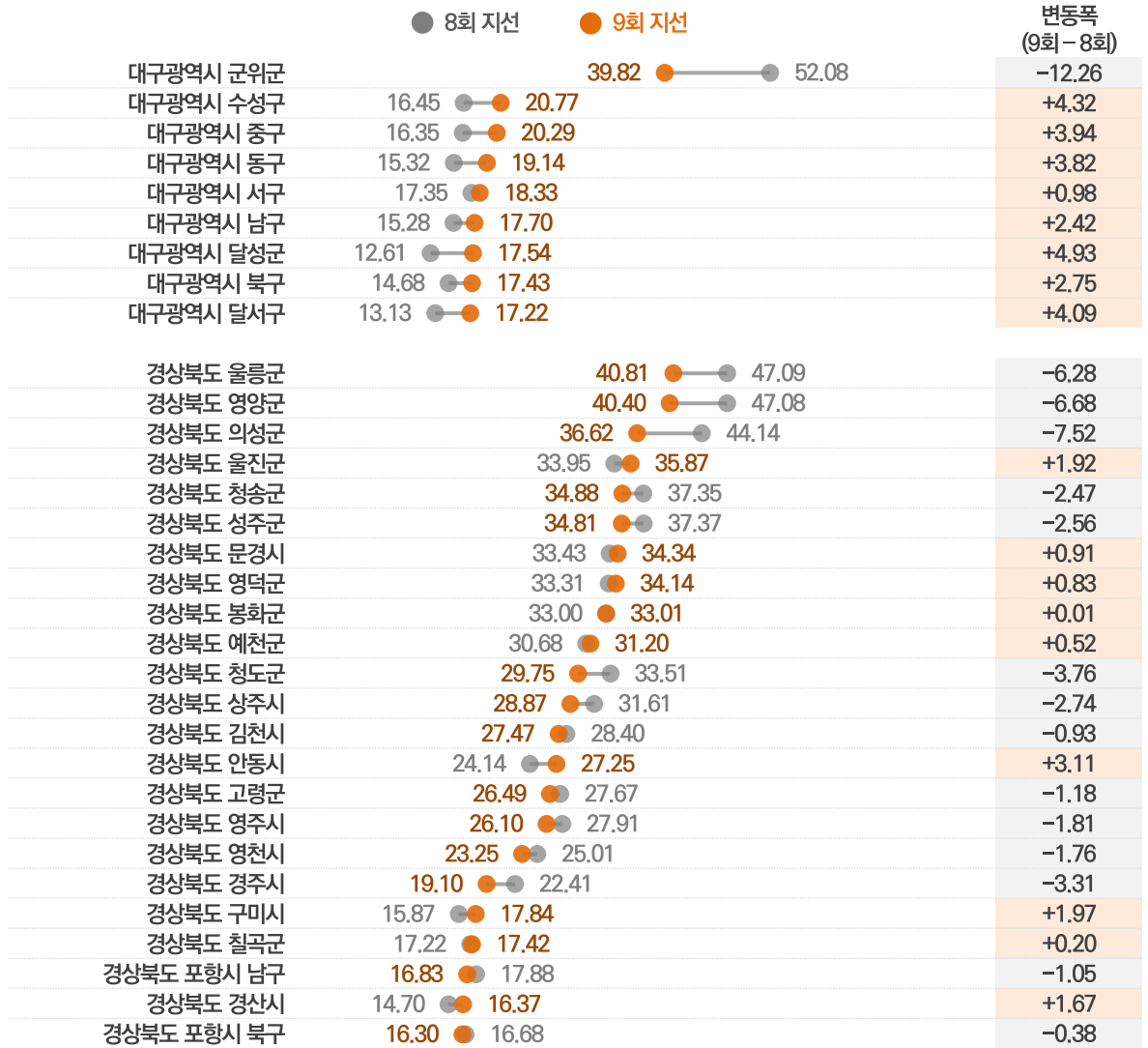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대구·경북 32개 기초자치단체의 8회·9회 지선 사전투표율

(단위 : %, %p)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부산·울산·경남 43개 기초자치단체의 8회·9회 지선 사전투표율

(단위 : %, %p)

	8회 지선	9회 지선	변동폭 (9회-8회)	
부산광역시 동구	23.03	24.90	+1.87	
부산광역시 영도구	22.47	24.50	+2.03	
부산광역시 북구	17.83	23.38	+5.55	
부산광역시 금정구	21.32	23.07	+1.75	
부산광역시 서구	21.31	22.87	+1.56	
부산광역시 중구	21.78	22.36	+0.58	
부산광역시 남구	20.28	21.74	+1.46	
부산광역시 동래구	18.25	21.20	+2.95	
부산광역시 연제구	18.00	20.81	+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8.37	20.74	+2.3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7.94	20.62	+2.68	
부산광역시 사상구	17.32	20.61	+3.29	
부산광역시 수영구	19.22	20.56	+1.34	
부산광역시 사하구	17.54	20.18	+2.64	
부산광역시 강서구	15.13	20.10	+4.97	
부산광역시 기장군	14.58	17.81	+3.23	
울산광역시 동구	22.48	23.76	+1.28	
울산광역시 울주군	20.43	23.29	+2.86	
울산광역시 북구	18.27	22.83	+4.56	
울산광역시 중구	20.46	22.42	+1.96	
울산광역시 남구	18.12	21.00	+2.88	
경상남도 하동군		40.88	43.52	-2.64
경상남도 함양군		38.86	42.34	-3.48
경상남도 산청군		37.06	37.18	-0.12
경상남도 남해군		36.02	36.91	+0.89
경상남도 의령군		35.43	37.80	-2.37
경상남도 합천군		32.41	35.03	+2.62
경상남도 거창군		32.44	33.36	+0.92
경상남도 고성군		31.66	32.54	-0.88
경상남도 창녕군		29.07	30.81	+1.74
경상남도 통영시	24.72	28.40	+3.68	
경상남도 함안군	25.13	28.31	+3.18	
경상남도 사천시	26.51	28.04	+1.53	
경상남도 밀양시	23.81	27.24	+3.43	
경상남도 진주시	22.24	26.24	+4.00	
경상남도 거제시	21.75	25.21	+3.4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1.75	23.23	+1.4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8.02	22.76	+4.74	
경상남도 김해시	16.57	22.20	+5.6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17.85	21.36	+3.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8.09	21.17	+3.0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19.82	21.15	+1.33	
경상남도 양산시	15.36	18.51	+3.1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강원·제주 20개 기초자치단체의 8회·9회 지선 사전투표율

(단위 : %, %p)

	● 8회 지선	● 9회 지선	변동폭 (9회-8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33.77	34.03	+0.2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33.48	33.54	+0.0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2.61	33.50	+0.8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9.20	33.50	+4.3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30.92	32.70	+1.7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31.31	32.59	+1.2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32.06	32.39	+0.3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32.29	33.18	-0.8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0.45	31.87	+1.4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1.31	31.87	-0.5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8.31	29.26	+0.9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6.45	27.17	+0.7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2.42	26.70	+4.2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2.37	26.50	+4.1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3.57	26.13	+2.5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3.77	25.47	+1.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2.77	25.12	+2.3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1.44	23.84	+2.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2.41	26.06	+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99	21.68	+0.6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지난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 관계

지난 지선·대선 사전투표율과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 간 상관관계 모두 높은 수준 이번 지선 사전투표 특성은 4년 전 지선과 더 닮아 — 호남 제외 시 차이 더 뚜렷

이번 9회 지선 사전투표율이 이전 선거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25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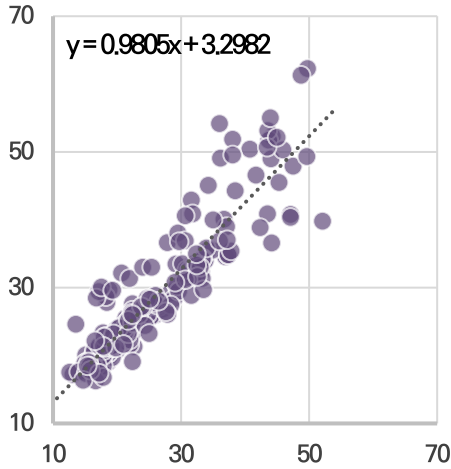
먼저 8회 지선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두 선거의 사전투표율 간 상관계수는 0.917로 매우 높다. 21대 대선 사전투표율과 비교해도 상관계수가 0.907로 역시 높다. 이번 지선의 기초자치단체별 사전투표율 분포가 이전 선거의 분포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높고, 낮았던 곳은 이번에도 낮다.

다만 작은 차이이기도 하나, 이번 9회 지선 사전투표율의 분포는 1년 전 대선보다는 4년 전 8회 지선에 조금 더 가깝다. 상관계수가 0.917 대 0.907로 8회 지선 쪽이 다소 높고, 회귀식의 기울기 또한 8회 지선과의 비교에서는 0.98로 1에 가깝게 나타나 두 시점의 사전투표율이 거의 평행 이동한 형태에 가깝다. 반면 21대 대선과의 비교에서는 기울기가 0.84 수준으로 다소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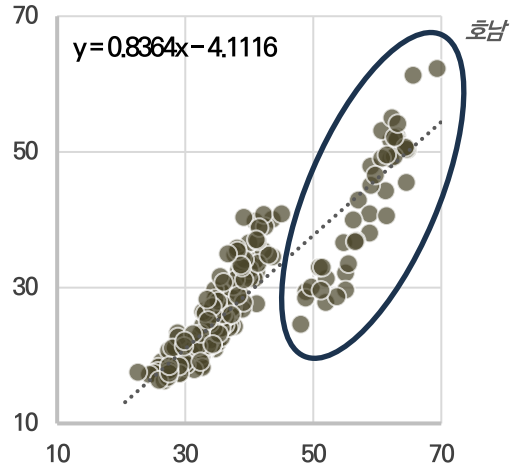
광주·전북·전남 42개 기초자치단체와 그 외 214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보면 두 비교의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광주·전북·전남을 제외한 214개 기초자치단체만 놓고 보면 8회 지선 사전투표율과의 상관계수는 0.960으로 오히려 더 높아지지만, 21대 대선과의 상관계수는 0.878로 낮아진다. 호남 42개 기초자치단체의 상관관계가 모두 비슷한 수준(8회 지선 0.937, 21대 대선 0.931)이라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즉, 호남 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지선-지선' 선거의 특성이 '대선-지선'이라는, 시간상으로 더 가까운 선거 특성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이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 행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고 낮은지의 큰 그림만 보면, 이번 지선의 사전투표율 분포는 4년 전 지선의 분포를 상당 부분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지선·대선 사전투표율과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 간 상관관계 모두 높은 수준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 특성은 1년 전 대선보다 4년 전 지선과 더 닮아 — 호남 제외 시 차이 더 뚜렷



8회 지선(2022년) 사전투표율



21대 대선(2025년) 사전투표율

	8회 지선(2022년) 사전투표율과 이번 지선(2026년) 사전투표율			21대 대선(2025년) 사전투표율과 이번 지선(2026년) 사전투표율		
	전국 (256개)	광주·전남·전북 (42개)	광주·전남·전북 외 (214개)	전국 (256개)	광주·전남·전북 (42개)	광주·전남·전북 외 (214개)
상관계수	0.917	0.937	0.960	0.907	0.931	0.878
R제곱	0.841	0.879	0.922	0.823	0.866	0.772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8회 지선(2022년) 및 21대 대선(2025년)의 사전투표율, 세로축은 9회 지선의 사전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지역의 연령 구조와 사전투표율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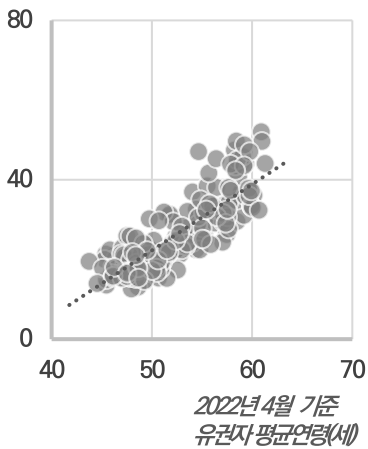
각 기초자치단체별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상관계수 0.732 사전투표율에 미치는 연령 효과는 여전히 높지만, 지난 지선과 비교하면 약화

기초자치단체별 사전투표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먼저 떠오르는 건, 유권자의 평균연령이다. 연령대가 낮은, 젊은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을까? 아니면 반대로 연령대가 높은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을까?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각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 평균연령과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 간 상관계수는 0.732로 높다. 평균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은 관계가 이번 지선에서도 뚜렷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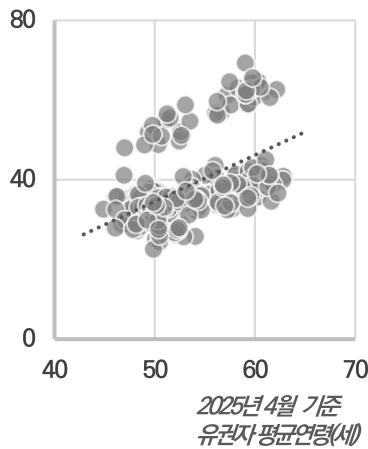
다만 연령 효과는 4년 전인 8회 지선에 비해 다소 약해진 모습이다. 8회 지선에서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의 상관계수는 0.847이었으나 이번 지선에서는 0.732로 내려왔다. 사전투표율을 가르는 요인으로서 연령의 영향력이 이전 지선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1년 전인 21대 대선에서도 유권자 평균연령과 상관계수가 0.521로 낮았고, 연령 효과 또한 이전 대선 대비 약해졌다. 이번 사전투표율 상승을 두고 2030 세대의 사전투표 참여 확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보면, 평균연령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관계의 방향은 이번 지선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그 강도는 8회 지선보다 약해졌는데, 이는 젊은 지역과 고령 지역의 사전투표율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는 뜻이다. 이 격차 축소가 젊은 층의 참여 확대를 반영하는지는 기초자치단체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각 기초자치단체별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상관계수 0.732 사전투표율에 미치는 연령 효과는 여전히 높지만, 지난 지선과 비교하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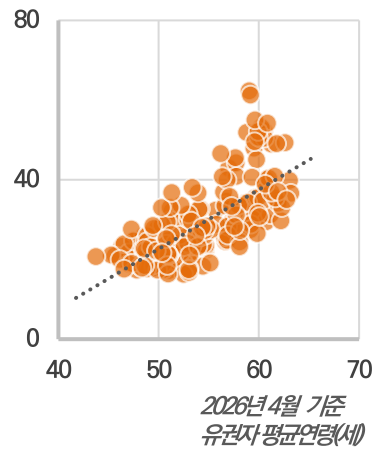
8회 지선 (2022년)
사전투표율(%)



21대 대선 (2025년)
사전투표율(%)



9회 지선 (2026년)
사전투표율(%)



	8회 지선(2022년)	21대 대선 (2025년)	9회 지선 (2026년)
상관계수	0.847	0.521	0.732
R제곱	0.717	0.271	0.536
P값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시점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각 기초자치단체별 유권자 평균연령, 세로축은 각 선거별 사전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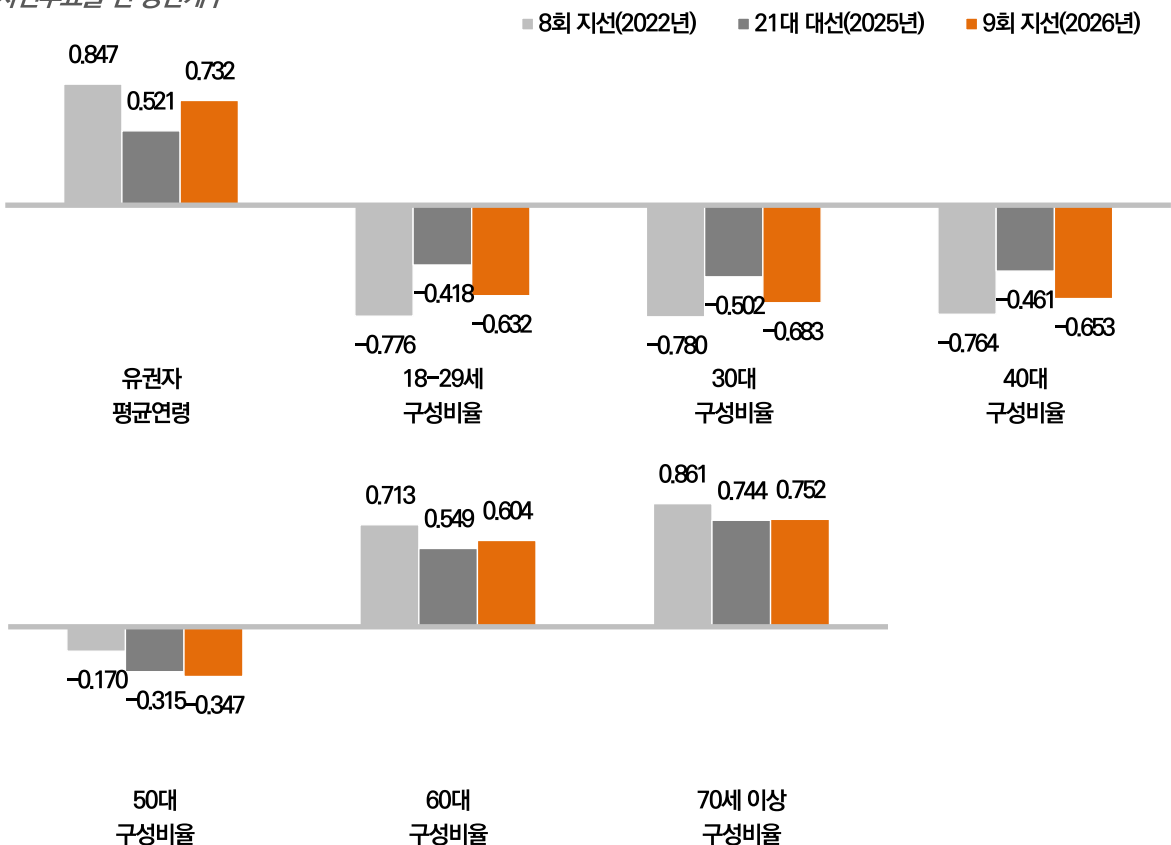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 클수록 사전투표율 감소,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 클수록 사전투표율 증가 50대 유권자 구성비율 제외, 지난 지선 상관계수 절대값은 감소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와 사전투표율의 관계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관계가 확인된다. 18-29세, 30대, 40대 유권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은 낮아진다. 전체 유권자 중 18-29세 유권자의 구성비율과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과의 상관계수는 -0.632이며, 30대 유권자 구성비율과의 상관계수는 -0.683, 40대 유권자 구성비율과의 상관계수는 -0.653이다. 반면 60대 유권자 구성비율과의 상관계수는 0.604, 70세 이상 유권자 구성비율과의 상관계수는 0.752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 50대 유권자의 구성비율과 사전투표율은 약한 음의 상관(-0.347)이다.

50대 구성비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8회 지선 대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줄었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보면, 연령 구성에 따른 사전투표율의 차이가 4년 전보다 다소 좁혀졌다고 볼 수 있다.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 클수록 사전투표율은 감소,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 클수록 사전투표율은 증가 50대 유권자 구성비율 제외, 지난 지선 상관계수 절대값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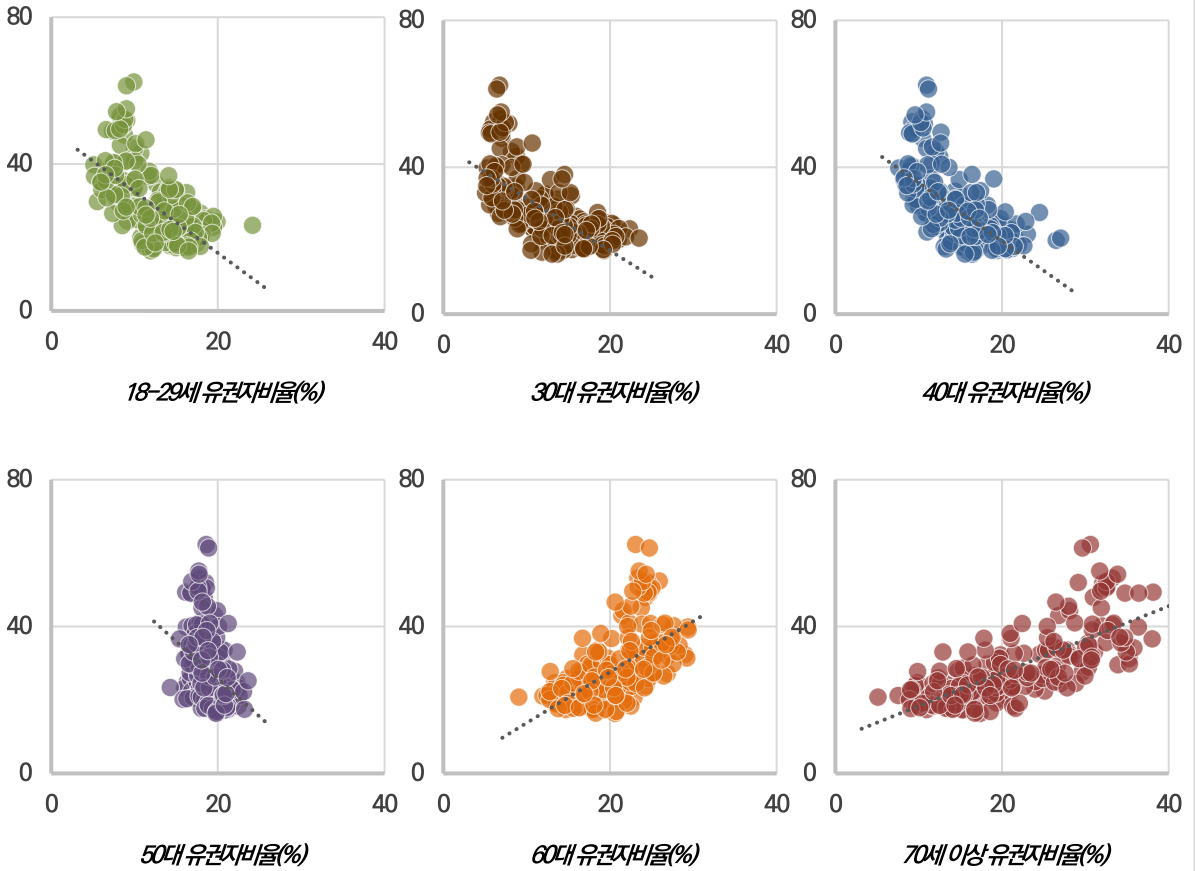
각 기초자치단체의 연령 특성과
사전투표율 간 상관계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의 각 선거의 지역별 사전투표율 결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에서 확인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유권자 평균연령 및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2·3·40대 유권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은 낮고, 60대와 70세 이상 유권자 비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은 높은 특성은 지속

9회 지선 (2026년)
사전투표율(%)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상관계수	-0.632	-0.683	-0.653	-0.347	0.604	0.752
R제곱	0.400	0.466	0.427	0.121	0.365	0.565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2026년 4월 기준 전체 유권자 중 각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 세로축은 9회 지선의 사전투표율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각 기초자치단체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상관관계 커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연령 효과의 강도가 지역마다 다르다. 광주·전라·제주(0.890), 부산·울산·경남(0.878), 대구·경북(0.828), 충청·강원(0.787)에서는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의 상관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인천·경기(0.693)도 높은 편이다. 반면 각 기초자치단체 유권자 평균연령이 엇비슷한 서울에서는 상관계수가 0.309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광주·전라·제주(0.890), 부산·울산·경남(0.878), 대구·경북(0.828)은
각 기초자치단체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상관관계 커

각 기초자치단체의 2026년 4월 기준유권자 평균연령과 9회 자선 사전투표율간의 상관관계 비교

	전체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기초자치단체 수(개)	256	25	58	54	44	32	43
상관계수	0.732	0.309	0.693	0.787	0.890	0.828	0.878
R제곱	0.536	0.096	0.480	0.620	0.793	0.686	0.770
P값	0.000	0.133	0.000	0.000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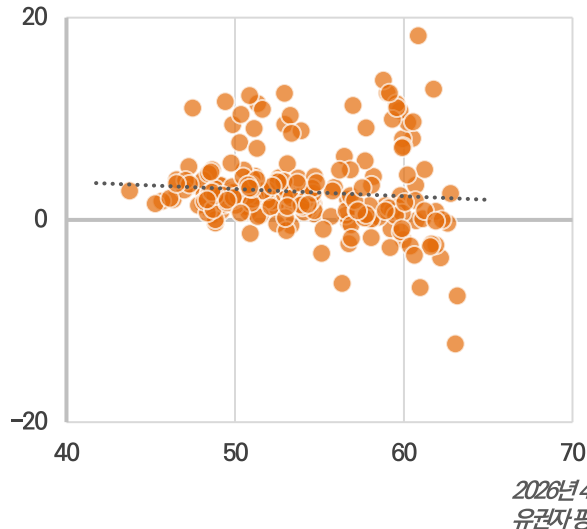
전국 단위로는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변동폭 간 뚜렷한 관계 없어 사전투표율에는 연령 효과가 있으나, 사전투표율 변동폭에는 연령 효과 없어

지금까지는 사전투표율의 '수준'과 유권자 평균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시각을 바꿔, 사전투표율의 '변동폭'(9회 지선 사전투표율 - 8회 지선 사전투표율, %p)이 유권자 평균연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국 25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변동폭의 상관계수는 -0.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사전투표율의 절대 수준과 유권자 평균연령 간 상관관계는 이전보다는 줄었어도 여전히 강하지만,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지선 대비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와 유권자 평균연령 간 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단위로는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변동폭 간 뚜렷한 관계 없어 사전투표율에는 연령 효과가 있으나, 사전투표율 변동폭에는 연령 효과 없어

사전투표율 변동폭
(9회 지선-8회 지선, %p)



상관계수	-0.088
R제곱	0.008
P값	0.16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각 기초자치단체별 유권자 평균연령, 세로축은 지난 8회 지선 대비 이번 지선의 사전투표율 증감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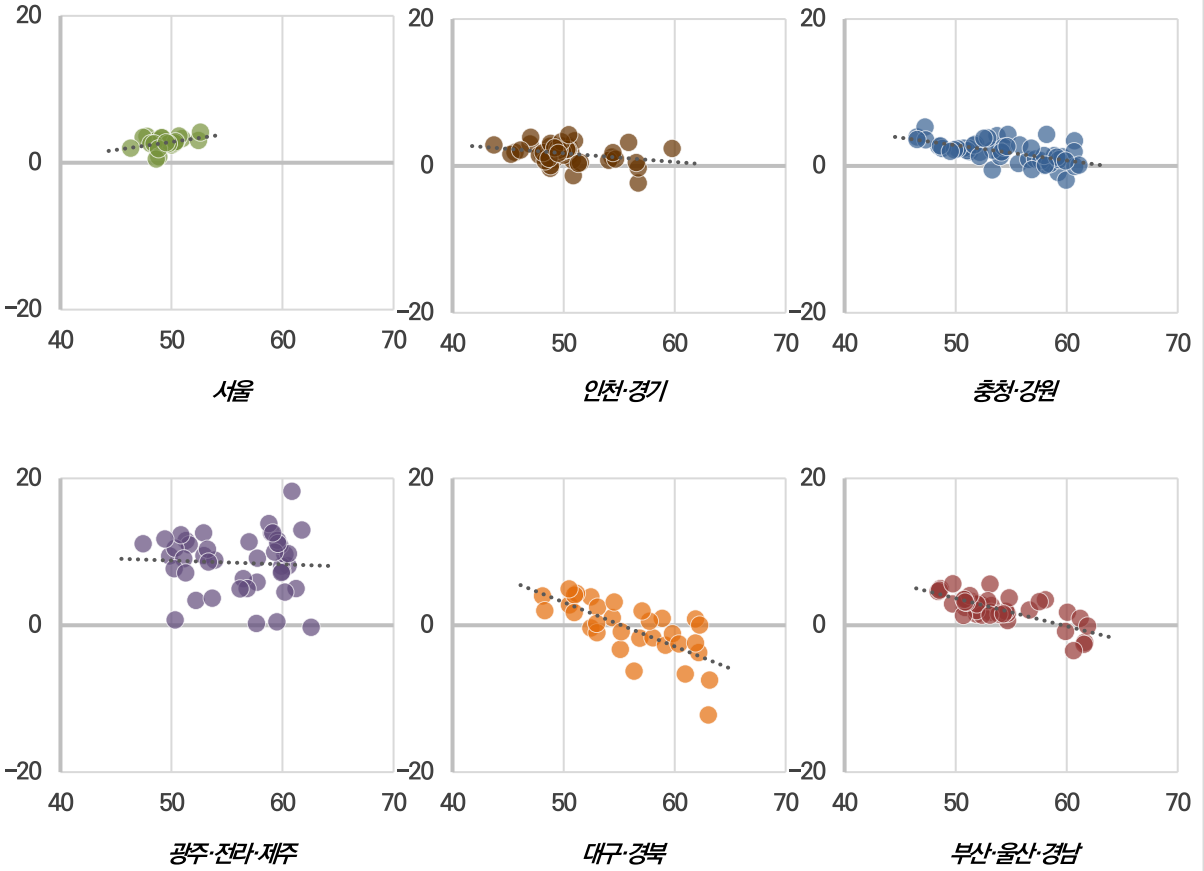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사전투표율 변동폭과 유권자 평균연령은 권역별로 다른 양상...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사전투표율 상승폭이 큰 음의 상관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충청에서 뚜렷

그러나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권역별로 양상은 다르다. 대구·경북(-0.710), 부산·울산·경남(-0.693), 충청·강원(-0.584)에서는 평균연령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 상승폭이 더 큰 경향이 뚜렷하다. 인천·경기(-0.298)도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상관계수가 0.373으로 다른 권역과 부호가 반대이지만, 자치구가 25개로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광주·전라·제주에서는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권역별로 다른 양상의 단순상관 — 영남·강원·충청은 음의 관계, 호남·서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사전투표를 상승폭이 큰 음의 상관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충청에서 뚜렷

사전투표율 변동폭
 (9회지선-8회지선, %p)



	전체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기초자치단체 수(개)	256	25	58	54	44	32	43
상관계수	-0.088	0.373	-0.298	-0.584	-0.055	-0.710	-0.693
R제곱	0.008	0.139	0.089	0.341	0.003	0.504	0.480
P값	0.163	0.066	0.023	0.000	0.722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각 기초자치단체별 유권자 평균연령, 세로축은 지난 8회 지선 대비 이번 지선의 사전투표율 증감폭

4년 전 사전투표율 수준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결과, 영남지역 사전투표율 변화는 연령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호남지역에서는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상승이 더 크다는 관계 새로 드러나

다만 이 결과만으로 '영남, 강원, 충청 등에서 평균연령이 낮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 상승폭이 더 컸다'고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은 4년 전 8회 지선에서 이미 사전투표율이 꽤 높은 수준이었다. 이미 높았던 곳은 산술적으로 더 오를 공간이 적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일수록 올라갈 여지가 크다. 단순상관관계로 확인한 음의 관계 중 일부는 이런 출발선 차이의 흔적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4년 전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하고 상관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지난 지선의 사전투표율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유권자 평균연령과 이번 사전투표율 상승폭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본 것이다. 결과는 단순상관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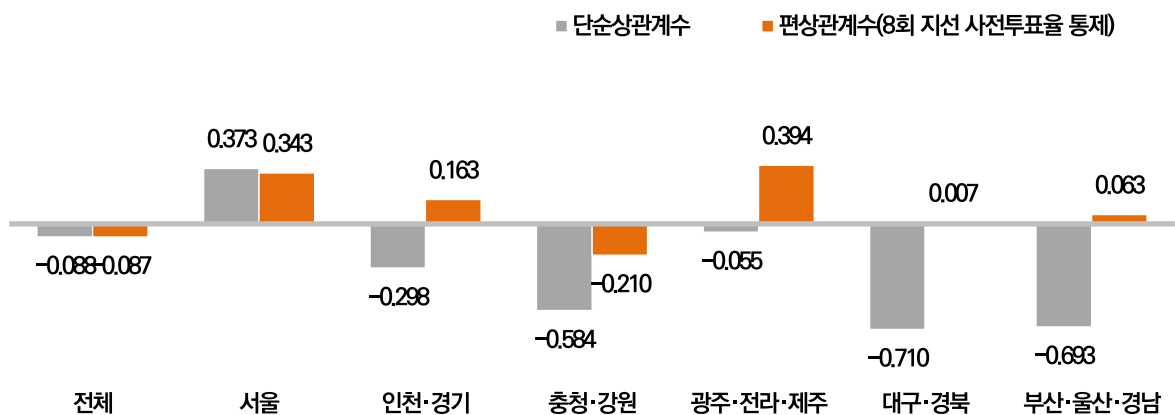
앞서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하기 전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의 상관계수는 -0.710, 부산·울산·경남은 -0.693으로 높았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을 통제한 결과, 이들 지역의 상관계수는 각각 0.007, 0.063으로 사실상 상관관계가 사라졌다. 영남 지역은 '평균연령이 낮은 곳의 사전투표율 상승폭이 더 큰' 것이 아니라, '4년 전 높았던 곳은 덜 오르고, 낮았던 곳은 더 오른' 것이다. 충청·강원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상관계수도 -0.584에서 -0.210으로 약해졌다. 다만 상관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광주·전라·제주 기초자치단체는 사전투표율 통제 전의 상관계수는 -0.055로,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증감은 무관해 보였다. 하지만 8회 지선 사전투표율 통제 후에는 0.394로 양의 상관관계로 바뀌었다. 4년 전 비슷한 사전투표율이었던 곳끼리 비교하면,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에서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이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다.

서울은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한 후에도 상관계수가 0.343으로 부호와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4년 전 사전투표율 수준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결과,

- 영남지역 사전투표율 변화는 연령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 호남지역에서는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상승이 더 크다는 관계 새로 드러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단순상관계수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증감폭 간의 상관계수, 편상관계수는 지난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 한 후 각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증감폭 간의 상관계수

정리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은 유권자 평균연령과 관계가 깊다. 다만 사전투표율이 4년 전 대비 얼마나 더 오르거나 내렸는지, 그 변동폭과 유권자 평균연령과의 관계는 권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남에서의 사전투표율 변동은 대부분 4년 전 사전투표율의 차이로 설명이 되고, 호남에서는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은 곳의 사전투표 참여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계이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의 사전투표 참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줄 뿐이며, 유권자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이번 사전투표율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함의를 좀 더 깊게 살펴본다.

5

지난 대선 득표율과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 관계

전체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 단, 호남을 제외하면 반대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사전투표율도 낮아’ 사전투표율 ‘증감폭’으로 보면, 호남을 제외해도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더 많이 올라

앞서 살펴본 유권자 평균 연령은 사전투표율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높지만, 사전투표율 ‘변동폭’와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율 및 그 변동은 어떤 요인과 연결되어 있을까? 1년 전인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기초자치단체별 득표율과, 이번 사전투표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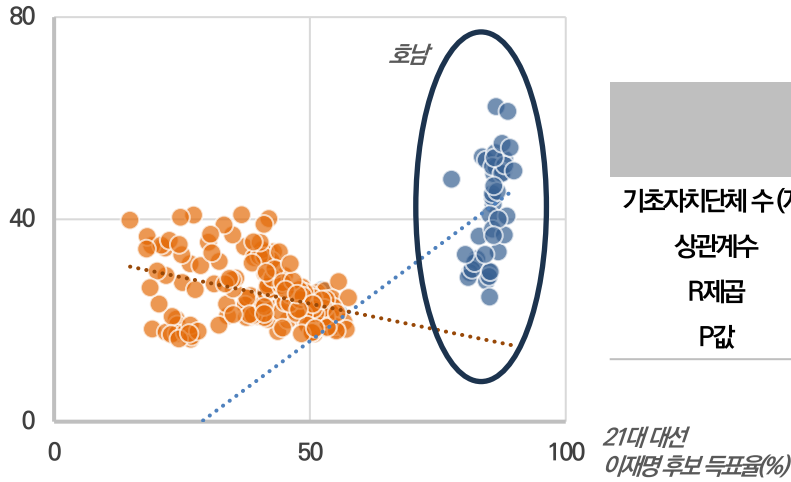
25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이번 9회 지선 사전투표율 간 상관계수는 0.512로 양의 관계이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았던 곳일수록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도 높은 경향이다. 사전투표율의 변동폭(9회 지선 사전투표율 - 8회 지선 사전투표율, %p)과의 상관계수는 0.757로 더 강하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선 대비 더 많이 올랐다는 의미이다.

다만 좀 더 들여다보면 둘의 성격은 같지 않다. 광주·전라·제주의 44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212개 기초자치단체만 놓고 다시 보면, 지난 대선 이재명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 수준과의 상관계수는 -0.376 으로 부호가 반대로 뒤바뀐다. 서울과 호남을 모두 제외한 187개 기초자치단체만 놓고 보아도 -0.392 로 음의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진다. 즉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사실상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이 만든 양상이며,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사전투표율 변동폭은 다르다. 광주·전라·제주를 제외한 212개 기초자치단체만 놓고 보아도 상관계수가 0.468로 양의 관계가 유지되고, 서울과 호남을 모두 제외한 187개에서도 상관계수는 0.442로 여전히 양의 관계이다. 4년 전 대비 사전투표율의 증감폭만 한정해서 보면,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상승폭이 크며, 이는 호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결과이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
단, 호남을 제외하면 반대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사전투표율도 낮아'**

9회 지선 (2026년)
사전투표율(%)



	전체	호남	호남 제외	호남, 서울 제외
기초자치단체 수(개)	256	44	212	187
상관계수	0.512	0.503	-0.376	-0.392
R제곱	0.262	0.253	0.142	0.154
P값	0.000	0.000	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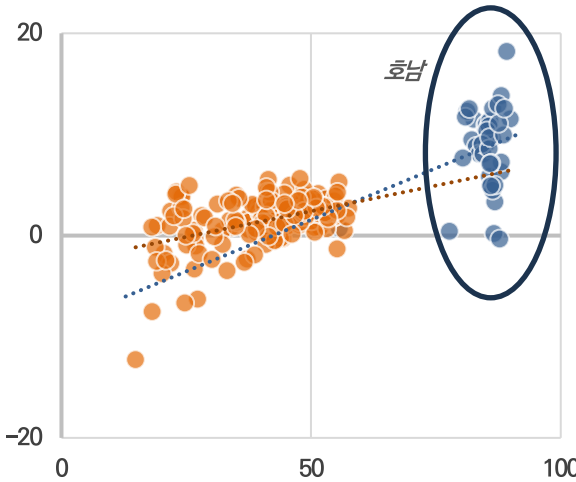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21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세로축은 9회 지선의 사전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사전투표율 ‘증감폭’으로 보면,
호남을 제외해도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더 많이 올라**

사전투표율 변동폭
(9회지선-8회지선, %p)



	전체	호남	호남 제외	호남, 서울 제외
기초자치단체 수(개)	256	44	212	187
상관계수	0.757	0.364	0.468	0.442
R제곱	0.573	0.133	0.219	0.195
P값	0.000	0.015	0.000	0.000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21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세로축은 지난 8회 지선 대비 이번 지선의 사전투표율 증감폭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 관계,
유권자 평균연령·지난 사전투표율을 통제하면 호남·서울에서만 양의 상관관계 유지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지난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 변동폭 관계도
유권자 평균연령·지난 사전투표율을 통제하면 호남·서울에서만 양의 상관관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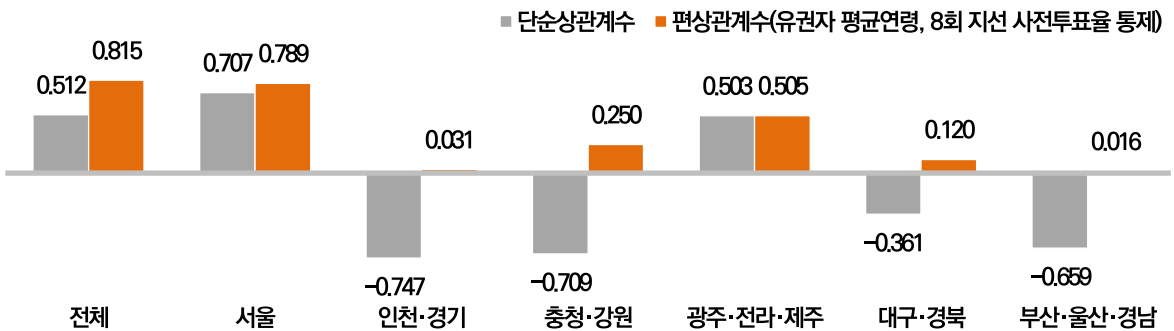
다만 이 단순상관만으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에서 사전투표율이 더 올랐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았던 곳 중에는 호남 군 지역처럼 유권자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 광주광역시처럼 지난 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상관분석에서 관찰된 양의 관계 중 일부는 유권자 연령 혹은 이전 선거 사전투표율의 영향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유권자 평균연령과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함께 통제하고 상관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유권자 평균연령이 동일하고, 8회 지선 사전투표율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결과는 단순상관과 다소 다른 양상이다. 전국 256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사전투표율 수준과의 상관계수는 0.512에서 0.815로, 변동폭과의 상관계수는 0.757에서 0.815로 오히려 더 강해진다. 다만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 자체가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고,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크게 오른 지역도 호남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국 수치는 ‘호남이나 아니냐’의 차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지, 같은 권역 안에서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더 올랐다는 뜻은 아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8회 지선 사전투표율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유지된다(0.789). 광주·전라·제주에서도 모두 양의 관계가 견고하다.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통제 시 사전투표율 수준 및 변동폭과의 상관관계가 사라진다.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된다. 이들 권역의 사전투표율과 증감폭은 유권자 평균연령과 이전 지선 사전투표율로 설명되며, 둘을 걷어내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도 높은 경향 단, 유권자 평균연령·지난 사전투표율을 통제하면 호남·서울에서만 양의 상관관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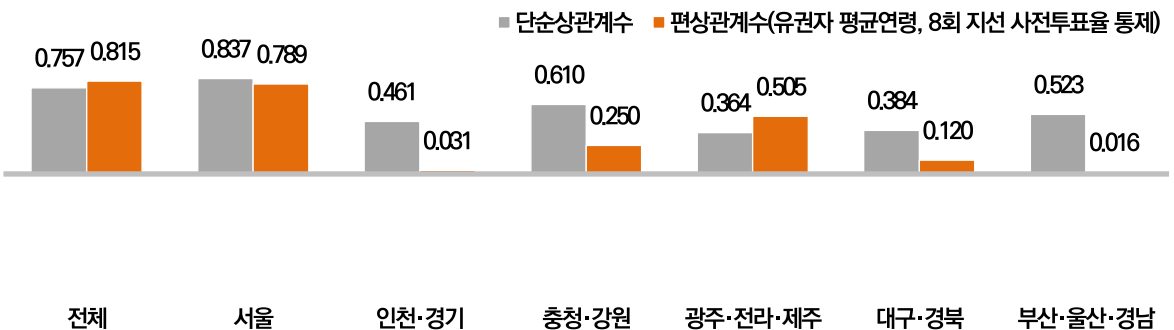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단순상관계수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대선 이재명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 간의 상관계수, 편상관계수는 유권자 평균연령과 지난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한 후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대선 이재명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 간의 상관계수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하므로, '사전투표율 수준'과 '증감폭(9회-8회)'에 대한 편상관계수는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산출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지난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 증가폭도 큰 경향 단, 유권자 평균연령·지난 사전투표율을 통제하면 영남, 인천·경기에서는 상관관계 사라지고 호남·서울에서만 양의 상관관계 유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단순상관계수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대선 이재명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 증감폭 간의 상관계수, 편상관계수는 유권자 평균연령과 지난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한 후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대선 이재명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 증감폭 간의 상관계수 8회 지선 사전투표율을 통제하므로, '사전투표율 수준'과 '증감폭(9회-8회)'에 대한 편상관계수는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산출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리하면,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이번 지선 사전투표율과 그 상승폭이 큰 경향이 있다. 다만 이 관계의 상당 부분은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 그리고 유권자 평균연령과 4년 전 사전투표율의 차이로 설명되며, 이를 모두 통제하더라도 관계가 뚜렷이 남는 곳은 서울과 호남 정도다.

이번 9회 지선 사전투표율 23.51%는 지선 기준 역대 최고치다. 25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6곳에서 사전투표율이 올랐다. 하지만 상승폭은 고르지 않다. 호남 3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고 그중 전북과 광주는 8회 지선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반면, 경북은 광역 단위로는 유일하게 사전투표율이 하락했다.

이번 사전투표율의 전반적인 모습은 4년 전 지선과 비슷하다. 그리고 동시에 몇 가지 통념을 반박한다. 첫째,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투표 열기도 뜨겁다는 통념이다. 직전 8회 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지만 최종투표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최종투표율로 이어질지는 6월 3일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사전투표의 증가가 2030 세대의 참여 확대를 뜻한다는 해석이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전투표율 또한 높다는 관계가 이번에도 유지됐다. 다만 그 강도가 4년 전보다 약해져, 젊은 지역과 고령 지역의 격차가 다소 좁혀진 정도다. 셋째,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특정 진영, 흔히 진보 쪽에 유리하다는 통념이다. 전체로 보면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높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이 만든 양상이다. 호남을 빼면 오히려 반대 방향의 관계가 나타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 평균연령과 지난 지선의 사전투표율까지 함께 고려한 뒤에도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 증가가 또렷이 맞물린 곳은 호남과 서울 정도이다.

호남의 큰 상승폭을 해석할 때에는 비교 기준인 8회 지선의 성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8회 지선은 직전 대선 민주당의 패배와 정권교체 직후 치러진 선거였다. 실제로 광주의 8회 사전투표율은 17.28%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가 이번에 27.83%로 뛰었는데, 낮았던 출발선에서의 반등이라는 성격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상승을 특정 지지층의 투표 열기 상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자료는 어느 지역의 참여가 변했는지를 보여줄 뿐, 그 동기까지는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단계에서 누가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까지만 사전투표율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을 뿐, 그 움직임이 표심의 유불리로 환산되는지는 본투표가 끝난 뒤에야 가능할 수 있다.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